

‘톡톡 누르면 배움이 쑥쑥’

전북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교과 기초학습 능력 강화 위해 교재 발간
‘톡톡펜’ 기능 지원… 한국어 포함 베트남어·중국어·영어 등 7개 언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톡톡 누르면 배움이 쑥쑥’ 교재를 발간했다. 이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과 기초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능력 향상 및 교과 학습에서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실제 학습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교재를 제작한 것이다.

‘톡톡 누르면 배움이 쑥쑥’ 교재는 초등학생용과 중학생용으로 제작됐으며,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총 7단계 수준별로 구성됐다.

초등 저학년은 국어와 통합 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초등 3학년 이상은 국어·사회·과학 과목의 핵심 어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날말 알아보기 → 날말 익히기 → 정리하기 → 실력 다지기’의 단계별 흐름으로 학습 효과를 극대화했다.

교재에는 ‘톡톡펜’ 기능이 지원돼 한국어를 포함한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영어 등 7개 언어로 들을 수 있다.



시로 생성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톡톡 누르면 배움이 쑥쑥’ 교재.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이에 학생들은 모국어로 학습 내용을 이해한 뒤 한국어로 다시 익히는 과정을 거치며 언어 습득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학습 중간마다 마련된 ‘쉬어가기’ 코너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톡톡 누르면 배

움이 쑥쑥’ 교재를 총 2,000세트 제작해 학교 및 교육기관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지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 교재가 다문화학생들의 학습 격차 해소와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학생들이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제자 사랑’ 어머니의 뜻 이어가고파

조정희 제자사랑 장학회
오성원 회장, 덕진중에
1억원 장학금 추가 약정

‘조정희 제자사랑 장학회’ 오성원 회장이 20일 어머니의 14주기 추모일을 맞아 전주덕진중학교에 1억원의 장학기금을 추가로 약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 회장은 2011년 8월 19일 당시 전주덕진중 국어 교사였던 어머니 조정희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이 단체를 설립했다.

이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 장학금과 도서 구입비 등으로 8,600만원을 기부했으며, 매년 6명의 학생에게 7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올해 어머니의 14주기를 맞아 1억원을 추가로 약정했다.

오 회장은 “어머니가 재직 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평소 제자들을 향한 남다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떠올렸다”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



‘조정희 제자사랑 장학회’ 오성원 회장이 20일 어머니의 14주기 추모일을 맞아 전주덕진중학교에 1억 원의 장학기금을 추가로 약정했다.

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하늘에서도 어머니의 가르침이 학생들에게 새겨질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주덕진중 안순희 교장은 “오 회장의 헌신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

에게 희망을 전하고, 또 고인이 된 선생님의 가르침을 영원히 빛낼 것”이라며 “그 뜻에 따라 장학기금을 투명하게 운영해 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 학부모교육 ‘마음톡톡’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지원센터는 20일 센터 내 강당에서 학부모교육 ‘마음톡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학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며 정서적 회복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이에 학부모들이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가정 내에서 지지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있는 강사를 초청해 치유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회복적 생활교육을 기반으로 자녀와의 관계 회복은 물론, 부모의 자기돌봄을 중심으로 둔 내용으로 구성해 학부모의 자녀이해 및 자기실현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또한 ‘부모 공감 Talk Q&A’ 시간을 통해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해소하는 기회를 가졌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가까운 곳에 대안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다”며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감성코칭 및 자녀와의 소통법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는 20일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우석대학교 제공)

우석대,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학사 208명·석사 105명·박사 67명 등 총 380명 배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20일 대학 본관 5층 우석홀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위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이홍기 산학협력부총장, 김운태 대외협력부총장, 학·처장, 학부모, 교직원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앞날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학사 208명을 비롯해 석사 105명과 박사 67명 등 총 380명의 졸업생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진재섭(특수교육학과) 박사가

이시장상을, 왕추이편(교육및문화콘텐츠개발학과) 박사 외 5명이 총장상을, 수위호(스포츠과학과) 박사 외 6명이 대학원장상을 수상했다.

박노준 총장은 “졸업생들의 무한한 자긍심이 뿜어올 수 있도록 대학 또한 끊임없이 성장하며, 발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랑스런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든든한 일꾼이자, 책임 있는 지도자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참다운 인재로 우뚝 서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다문화 청소년 위한 실습 프로그램 ‘호응’

전주가족센터 ‘다다캠프’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등 후원
호남 80명 다문화 청소년 참여

전북대학교 가족센터사업단(단장 윤명숙 교수)이 운영하는 전주가족센터(센터장 이해경)가 JB금융그룹 다문화 분야 핵심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다다캠프’를 통해 지역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캠프는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의 후원과 광주 쿠테이비스의 협력으로 전주가족센터가 주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르면 캠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광주·전남지역에서 각각 40명씩 총 80명의 다문화 청소년이 참여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네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어,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미래를 향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다(多)문화 캠프’라



는 슬로건 아래 운영된 프로그램은 △금융경제교육 △진로탐색프로그램 △AI 기술을 활용한 CF 제작 △액티비티 활동 △전북현대모터스 FC 유소년 축구교실 등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의 흥미와 역량을 함께 키웠다.

특히 유튜브 에드머의 강연과 스타트업 ‘기발’ 박찬후 대표의 진로 토크 콘서트가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문화공연과 미술공연도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이해경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제3차 J-HUMAN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9일 비전대 대회의실에서 제3차 J-HUMAN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학사운영 협력 강화, MD/MD 과정 운영 방향 공유, 2학기 필수 교과목 개설 및 학생 모집 전략, 대학 간 연계·협력 방안, 성인학습자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전주비전대는 성인학습자가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다학제와 집중이수제를 도입하고, 온라인·혼합형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성인 맞춤형 교양·전공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2학기 교과목 개설과 학생 모집을 원활히 추진하고,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인학습자 친화형 학사운영을 실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장은성 기자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 가운데, 유정기 전북교육감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수여받은 교원·교육전문직원들과 화이팅을 하고 있다.

9월 1일자 교원·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교(원)장 승진 40명 등 총 172명… 전북교육 새로운 도약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 2층 강당에서 9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 대상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기관장 7명을 비롯해 유·초·중등 교(원)장 54명, 교(원)감 67명, 교육전문직원 51명 등 총

172명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임명장을 받은 여러분들이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력신장과 교권보호 등 전북교육이 추구하는 핵심가치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생들, 광복 80주년 맞아 상하이 독립운동 현장 탐방

‘전대청춘’ 일환으로 추진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중국 상하이를 찾아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가 매년 학생들의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운영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전대청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2017년 시작된 ‘전대청춘’은 학생들에게 역사적·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학생들은 고구려 유적지, 항일운동의 본산, 조선통치사의 발자취 등을 탐방하며 선조들의 지혜와 나라사랑 정신을 배웠다.

올해는 총 32명의 학생이 상하이의 항일운동 유적지를 돌아봤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민족공묘, 투신공원, 성시역사박물관 등을 방문해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역사의식을 새기고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탐방로



전북대학교 학생들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했던 중국 상하이를 찾아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역사와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고 숭고영상을 제작·공유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정종인 부총학생회장은 “책으로만 접하던 임시정부청사와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보니 선조들의 치열했던 삶이 생생하게 다가왔다”며 “이번 경험이 제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대청춘’은 우리대학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역사·의식 고취 프로그램”이라며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를 지켜온 선열들의 정신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학생들의 미래에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